

일주문



고운사 회주에 추대
근일 부석사 주지는 1월 10일 열린 조계종 제 16교구 고운사 교구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고운사 회주에 추대됐다.



독일 순회 강연
법경 정토회 지도법사 스님은 3~8일까지 수행, 환경, 평화통일을 주제로 독일 순회강연을 갖는다.



생보지에 쌀·성금 전달
법경 서울 능인정사 주지는 17일 생활보호대상자인 김운찬씨와 이시우씨 등 20여명에게 금일봉과 쌀을 전달했다.



현민족작가연합 회장
고은 시인은 최근 전세계 한인작가들의 연합체인 세계한민족작가연합(WKWN) 초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네발의료봉사처 출국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은 네팔에서 열리는 의료봉사에 참가하기 위해 3일 출국했다.



대청정보시스템 대표
김병규 前 문화일보 편집국장장은 1월 30일 열린 (주)대청정보시스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생활속의 창성 특강
박희선 국민대 명예교수는 10일 오후 3시 전북불교대학에서 '생활속의 창성과 건강'을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인사

동국대 신규교원
서울=△묘주스님(불교학과) △우재선(불교학과) △안형택(경제학과) △최영균(공과학과) △강호덕(산림자원학과) △권승구(생명자원산업융합학과) △김삼동(전자공학과) △백낙훈(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과) △한철호(역사교육과) △안재섭(지리교육과) △정진현(영상정보통신대학원 멀티미디어학과)
경주=△윤영해(불교학과) △진원스님(선학과) △송민영(영어영문학과) △강범주(정보통신공학과) △장규태(한의학과) △김근우(한의학과) △김정석(의학과) △신동필(의학과) △김도균(의학과) △고병원(의학과)

"불음 실은 선율로 극락 만들죠"

신사년을 뛰는 우바이 ④

니르바나 실내악단 강형진 단장



"부처님 가르침을 서양 음악의 언어로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불자들이 좀 더 다양한 장르의 불교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사람과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많이 열 계획입니다."

불교계의 유일한 클래식 전문 포교 연주단체인 니르바나 실내악단 강형진 단장(47)은 올해의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실제로 창단 3년째를 맞는 니르바나 실내악단은 4월 1일 대전 공연을 시작으로 4월 8일 대구, 4월 15일 서울 예술의 전당 등 벌써부터 땀땀한 연주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동구권 지휘자를 초청해 수준 높은 음악을 연주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국악이 주류를 이뤄 서양음악의 활동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불교음악계지만 국민들 대부분이 초등학교때부터 서양 음악을 배워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포교하기가 더 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KBS교향악단에서 15년동안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했던 강단장이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10여년전.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경을 헤매던 오빠를 살리기 위해 동문서주하고 있을 때 잠실 불광사에서 알게된 황득효 보살

"수도권 문화·복지 포교 앞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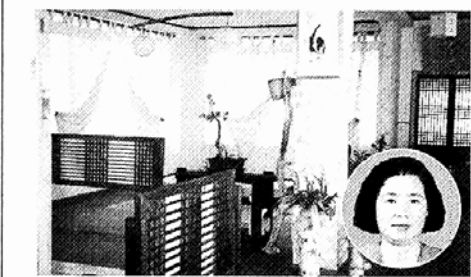
천태종 관문사 2대 주지 춘광스님



1일 취임식을 가진 천태종 서울 관문사 제2대 주지 춘광스님은 관문사가 지역사회의 선하고 있는 위치를 극대화하여 지역사회의 문화, 종교, 복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사회복지와 문화사업에 역점을 두어 대사회적 목적사업 참여를 본격화 하겠다는 것.

"관문사가 명실상부한 수도권 포교의 중심사찰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일 취임식을 가진 천태종 서울 관문사 제2대 주지 춘광스님은 관문사가 지역사회의 선하고 있는 위치를 극대화하여 지역사회의 문화, 종교, 복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사회복지와 문화사업에 역점을 두어 대사회적 목적사업 참여를 본격화 하겠다는 것.

스님은 "사회복지사업과 지역의 문화를 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불자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며 "어린이집과 사회복지관 수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개관한 성보전시관의 전시내용을 보다 다양화하고 관문사의 각종 공연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불교포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한다.



1일 개원한 전통찻집 '지선당'. 원안은 이영자 신수회장.

"차와 禪이 있는 포근한 휴식공간"

이영자 신수회장 전통찻집 열어

본사 신행수기 당선자들의 모임인 신수회 이영자 회장이 1일 울산 삼동면에 전통다원 '지선당(智仙堂)'을 개원했다. 양산 통도사와 석남사 문수사 문운사 등 유명사찰이 인근 거리에 있는 지선당은 110평 규모로, 실내가 격조높은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 마치 산사라도 온 듯한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이영자 회장은 "앞으로 태교 강의와 다도회, 휘호대회, 분재전시회, 야외조각전 등 다양한 문화강좌와 행사도 개최해 문화와 문화인들이 만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개방하겠다"고 말한다. (052)254-3435 이경숙 기자

"환경보전 주부실천에 달렸죠"

경북련 환경위원장 정혜옥 보살



"수질오염의 주범이 생활오수라는 사실은 생활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 보살들이 환경의식을 갖고 가정과 사찰에서 작은 환경운동을 펼치는 것이 청정국토를 이루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1일 서울 미아동 자비의집에서 주부 회원 37명으로 출범한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환경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은 정혜옥(49) 법련회 보살은 "어머니 환경모임 창립이 여성 불교환경운동의 주춧돌이 될 수 있게끔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보살은 사찰의 초 재물을 및 꽃·나무 심기, 폐식용유로 비누만들기, 장바구니 쓰기, 일회용품 안쓰기 등 생활 속의 작은 환경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또 매달 첫째 목요일 오전 11시에 환경강좌를 열어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회원들도 점차 늘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캠페인도 벌일 방침이다.
정 보살은 "보살들도 이제는 기복신행을 벗어나 이웃과 자연을 함께 살리는 원력보살이 되어야 한다"며 여성 불자들의 동참을 기대했다. (02)3147-2600 김재경 기자



서돈각 이사장 팔순 기념 논총 봉정식

정토학회(회장 홍윤식)는 대한불교진흥원 서돈각 이사장 팔순 기념 논총 봉정식을 1월 19일 동국대 상록회관에서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관 가산문화연구원 원장 스님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홍윤식 정토학회 회장은 "평생을 포교에 헌신해 오신 서돈각 박사에게 감사드리기 위해 기념논총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부산 삼광사 도원스님 주지 취임법회

부산 삼광사 제 7대 주지 도원스님 취임법회가 1일 경내 지관전에서 봉행됐다. 부산광역시 안상영 시장, 부산불교연합회 성오스님 등 3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취임법회는 인영일 신도회장의 취임법회도 겸했다. 신일 주지 도원스님은 "승속의 화합을 통해 실천수행의 공간, 열린 공간으로 지역사회의 시민들에게 영원한 귀의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논산훈련소 3천여명 수계법회

백용성조사 유충실현후회회(회장 한수승) 후원으로 1월 21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수법당에서 용성스님 열반 61주기 기념 수계대법회가 봉행됐다. 불심 도문스님(대성석가사) 조실이 수계사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는 논산훈련소 훈련병 3천여명이 오계를 수지하고 연비를 받았다.



불교여성개발원 신년하례 법회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재)은 신년하례 및 임명장 수여식을 1월 30일 마당 세일 레스토랑에서 개최했다. 수석사 주지 법장스님을 비롯해 여성불자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이인자 원장은 "올해에는 조계사내 탁아시설 설치, 한국여성불교 역사 연구 등의 사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2001년 범음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1969년 설립한 육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이 되어 불교 교역자로서 의전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종파를 초월하여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1. 모집내용
학년 강 의 내 용 모집인원 학년 강 의 내 용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과 50명 특 수 바라, 나비춤, 법고등 약간명
2학년 각배과 50명 이 론 불교의식론
3학년 영산과 50명
2. 응시자격 승려, 교역자,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 ② 주민등록등본 및 승적 증명서 1부 ③ 증명사진 3매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1년 2월 12일 ~ 3월 1일까지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범음대학 교무처
6. 합격자 발표 2001년 3월 3일 발표(개별통지)
7. 입학일 2001년 3월 5일 오후 2시(봉원사 설법전)
8. 특 전 졸업생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음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범음대 TEL (02)392-3234, 종무소 TEL (02)392-3007~8, FAX (02)393-9450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범음대학

2001학년도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후기 신(편)입생 모집

귀의 삼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의식·범음(범패)를 계승·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1년도를 맞이하여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범패·오잡 및 작법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불자님·스님·포교사님들의 많은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해산 승掌 -
1. 모집학과
학과 교육 내용 모집인원 비 고
기본 교육과정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조·석예불, 불공의식, 시식 20명 6개월
전통 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49재의식 및 천도재의식 (절안 및 재공의식) 20명 1년
연구 과정 오잡, 작법, 안차비 등 10명 1년
2. 응시자격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면접)
4.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5.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주 4회(月~木)
▶ 접수일자: 2001년 2월 1일 ~ 2월 19일
▶ 개 강: 2001년 2월 20일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 967-7093
▼ 찾아오시는 길
[지도 설명: 청량리역, 청량리, 교육대학, 제기동, 롯데백화점]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